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리로다”
차티스가르 기독교인, 힌두 민족주의자에 공격받아**



최근 인도 차티스가르주의 기독교 공동체가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 몇 명의 교인들이 다쳤으며 이 중 두 명은 중태다.

지난 8일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주일 아침, 급진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예배 중이던 교회에 무기를 들고 난입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재산 피해와 상해를 입히려는 듯 보였다.

수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온 라젠드라 목사에게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예배 중단 압력과 폭력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개종 활동’을 이유로 라젠드라 목사의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했다. 이 지역의 다른 교회에도 이와 같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라젠드라 목사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공격이 있기 전까지 교회 폐쇄를 강요당한 적이 없었다며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한 익명의 기독교 지도자는 “기독교인들이 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최근 선거에서 친 힌두 정당이 주 정부로 복귀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차티스가르에서 발생한 100건이 넘는 기독교인 대상 폭력 사건 중 하나이며, 공격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라젠드라 목사는 가장 최근에 당한 공격 이후 당국에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고, 공격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관심 부족은 현재 인도의 정치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2023년 차티스가르주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대상 폭력 사건은 143건 이상이였으며, 이 가운데 35건은 사회적 보이콧(배척 사례)이고, 20건은 기독교인 가족 구성원들의 시신 매장을 방해한 사례다. 차티스가르주는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이어 인도에서 가장 박해받는 지역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요한계시록 17:14)

하나님,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폭력과 사회적 배척 등의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굳건한 교회로 서 있는 인도 차티스가르주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공격으로 부상 당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공격이 우리의 몸을 해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인도 땅을 구원하시는 승리를 열방이 함께 보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우크라이나, 러시아 강제 이주 아동 387명 귀환

전쟁통에 러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우크라이나 아동 가운데 수백 명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9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러시아에 납치된 약 2만 명의 어린이 중 387명을 귀국시키는 데에 성공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이들의 구출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며, 제3국 관계자들의 국제적인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납치된 아동 상당수가 고아이거나 부모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서, “모든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이사야 43:6-7)

하나님, 전쟁 중에 러시아로 강제 이주 당했던 아동들이 구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힘겨웠을 시간이 그들의 남은 삶을 두려움과 슬픔에 가두지 않도록 이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거두어, 주의 손길로 돌볼 기관들을 예비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귀한 영혼이 보호를 받으며 주께서 베푸신 긍휼을 자랑하게 하소서. 또한,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오니 서로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헛되고 악한 계획이 속히 무너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 멕시코,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 하원 통과에 시민단체들 우려

멕시코 하원이 최근 탈동성애 치료(일명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170개 이상의 친가족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 때문에 의료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테러 정권’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탈동성애 치료는 동성애자로 전환한 이후, 이 같은 선택의 문제점을 깨닫고, 원래의 성으로 회복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다. ‘가족을 위한 국민전선’과 ‘생명과 가족을 위한 시민 이니셔티브’가 이끄는 단체들은 멕시코 하원 정당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주관적으로 믿는 사람의 단순한 불평만으로도 최대 2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멕시코는 의료 종사자의 직업 행사,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반대하는 테러 정권이 수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의료진 등 실무자들은 최대 6년의 징역형과 약 1,58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잠언 13:13-14)

하나님,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멕시코가 창조주의 섭리와 말씀을 멸시하는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도록 개입해 주십시오. 의료 종사자뿐 아니라, 동성애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걸림이 되게 하는 악한 법보다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켜야 할 주님의 법이 있음을 이 땅이 알게 하옵소서. 멕시코의 교회를 깨워 주시고,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를 기도로 무너뜨리며 이 나라 백성들을 주를 경외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노라” 북아일랜드 기독교 단체, 낙태 옹호한 앰네스티 규탄



국제앰네스티가 북아일랜드의 낙태 접근 장벽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자, 한 옹호 단체가 “낙태는 인권이 아니”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영국 의회는 2019년 북아일랜드 지역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아일랜드에서 낙태권은 존재하지만 현실은 아니”라며 “정부가 낙태 치료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에 부합하는 낙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신한 사람들은 북아일랜드에서 시기적절한 낙태 관리 및 정보에 접근할 법적 권리가 있다.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영국까지 가도록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임기까지 견디도록 하는 것은, 성과 생식 건강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 단체 ‘케어’(CARE)는 “북아일랜드는 낙태를 강요한다”면서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케어의 루이스 데이비스(Louise Davies) 정책 책임자는 “앰네스티가 낙태를 ‘인권’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낙태는 국제 조약에 따른 근거가 없으며, 많은 북아일랜드 주민들에게 심한 모욕을 준다. 인권, 그리고 다른 모든 권리의 원천이 되는 권리는 생명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양심적 거부권은 보호돼야 한다. 앰네스티는 보고서는 민주적인 다문화 사회에서 양심적으로 낙태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여성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설하고 존경받는 낙태 반대 단체의 권리에도 도전한다”고 했다.

데이비스는 강압 및 의학적 합병증의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원격 의료를 통한 낙태에 대한 접근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녀는 “북아일랜드의 많은 이들이 어떠한 임신이든 두 생명 모두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여성을 임신 중일 때와 그 이후에도 모두 가치 있게 여기고 보호하며 지원하여 가족이 전체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를 정의롭고 가치있는 사회로 여긴다. 우리도 이에 동참한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린도후서 4:2)

하나님, 낙태 금지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나타내는 기독교 단체가 북아일랜드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위와 말씀을 경외하는 이들을 통해 세상의 거짓과 속임을 드러내 주시고, 진정한 공의와 생명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 사회가 깨닫게 하소서. 생명을 경시하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 낙태를 법제화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동성혼 허용국, 혼외 출산 비율 높아···아동 정서적 문제도 2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 대부분이 혼외 출산율의 비율이 높으며, 동성 부모 가정의 아동의 정서적 문제 발생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국민일보가 12일 전했다.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2016년 한 해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 중 혼외출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신생아의 59.7%가 혼외출산이었다. 뒤를 이어 슬로베니아(58.6%), 스웨덴(54.9%), 덴마크(54.0%), 포르투갈(52.8%), 네덜란드(50.4%) 등이었으며, 이들 국가 모두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설린스 미국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2015년 발표한 ‘동성 부모를 둔 아동의 정서적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성 부모 가정(4.4%)의 아이보다 동성 부모 가정의 아이(9.3%)가 두 배 높게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이사야 45:18,22)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 일들이 다음세대에게도 고스란히 혼돈과 고통을 주는 통계를 마주하며 이 세대의 양심이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남녀의 성별과 결혼, 출산 등 모든 삶의 섭리가 주님의 것임에도 자아가 주인 되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행했던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열방이 복음을 듣게 하소서. 혼란스러워하는 다음세대를 생명의 빛이요 진리로 인도할 축복의 통로들을 세계 곳곳에 세워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 중국 정부, 지하교회 탄압 심화···예배 기습 일상적

중국 정부가 일상적으로 예배를 기습하며, 온라인 예배나 기도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lobal Christian Relief, 구 오픈도어선교회)의 C.J. 우가 8일 크리스천포스트(CP)의 칼럼을 통해 밝혔다. 그는 “중국의 종교 자유는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래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미등록된 가정교회는 정부의 표적이 됐다. 주일예배와 소그룹에 대한 기습은 이제 흔한 일상이며, 경찰이 온라인 예배나 기도회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우는 중국 내 종교 자유의 하락 원인으로 2015년 시작된 ‘중국화 운동’을 꼽으며 “중국의 종교들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따르고 정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넘겨야 했다”면서 “가정교회 지도자들, 특히 정부의 단속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임의로 체포되거나 날조된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베드로전서 5:9-10)

하나님, 정부의 감시와 기습이 일상이 되어버린 중국의 지하교회가 잠시 당하는 고난 너머에 친히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예배를 방해받을수록 더욱 불타오르는 주를 향한 갈망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발견한 이들의 행보를 통해 수많은 중국인이 복음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종교조차 중국화를 꿈꾸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시진핑과 공산당 정부를 꾸짖으사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 앞에 겸손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미얀마, 쿠데타 후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됐다...‘아프간 제쳐’



미얀마가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 됐다. 1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올해 세계 최대인 약 1천80t 규모의 아편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편 생산량 790t과 비교하면 약 37% 늘어났다.

올해 미얀마 양귀비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18% 증가한 4만 7천100ha(헥타르·1만㎡)로 조사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미얀마 양귀비 재배 면적이 역대 최대인 2013년 5만 8천ha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재배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아편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편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며, 이를 다시 가공하면 헤로인이 된다.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의 접경지대인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은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로 꼽힌다.

특히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아편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UNODC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외곽 지역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양귀비 재배를 선택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아편 생산 증가는 빈곤, 정부 공백, 정치적·경제적 불안정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최근 벌어지는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미얀마군의 무력 충돌로 아편 생산 증가 추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기존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은 양귀비 재배 금지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은 지난해 4월 ‘불법 마약 근절’을 선언하며 양귀비 재배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아편 생산량이 95% 급감했다고 UNODC는 지난달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예레미야 18:11-12)

하나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사회와 가난 속에서 마약으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려는 미얀마를 꾸짖으사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장의 이익과 조급함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계획을 파하여 주시고, 아편 생산을 멈추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미얀마의 영혼들을 만나 주셔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에콰도르, 판사검사경찰 등 '사상 최대 부패 의혹' 드러나

남미 에콰도르에서 국가 주요 기관의 구성원이 대거 연루된 부패 의혹이 터졌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에콰도르 검찰은 '사상 최대 규모 비위 수사'라고 규정한 이번 사건에서 지금까지 20여 명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10여 명을 추가 조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디아나 살라자르 에콰도르 검찰총장은 14일 "마약 밀매 집단이 불법 자금을 바탕으로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 정치 영역과 사법 분야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오늘 900여 명의 수사관과 경찰이 전국 75곳 이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법원, 검찰청, 교도소 등까지 포함됐으며, 지금까지 30여 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고, 이 중 전·현직 판사, 검사, 경찰관, 교도관 등 29명을 체포해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잠언 16:5,11)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권력과 재물의 탐심에 눈이 멀어 부패를 일삼는 에콰도르의 국가 기관 구성원들의 양심을 책망하사 돌이켜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마약 조직과 결탁해 힘을 삼으려는 그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계획을 적발해 주신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에콰도르를 덮고, 진리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오는 위정자와 공직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섬기며 주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 프랑스, 의사 아닌 조산사에도 도구 낙태 시술 허용

프랑스 보건부는 12일 의사가 아닌 조산사에게 도구를 이용한 낙태 시술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르파리지앵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조산사에게 이미 2016년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행 권한을 부여한 것을 넘어, 물리적 도구를 이용한 낙태 시술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여성의 낙태 권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26개 시설에서 1년 넘게 시범 운영을 해 왔다. 베랑제르 쿠키야르 성평등부 장관은 "조산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실습 조건 등은 최종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많은 조산사가 생겨나 의사 부족으로 낙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다 하느니라(로마서 1:19,28,32)

하나님, 의사의 부족으로 조산사에게도 낙태 시술 권한을 부여한다는 프랑스의 소식에 자기와 육체의 탐심을 좇느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 허다한 이 나라의 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일에 대해 분명한 경고가 있음에도 서로를 옹다 하며 함께 치우쳐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 양심을 꾸짖어 주소서. 낙태가 존중받고 지원받아야 할 권리인 것처럼 속이는 인본주의의 거짓을 빛으로 밝히시고, 프랑스에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깨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